

광주체고 문건영, 104년 전국체전 사상 첫 7관왕

기계체조 고등부 첫 2연패
여자허들 정혜림 8연속 금
포환던지기 정일우 9연패

‘제2의 양학선’ 광주체고 문건영이 전국체전 역사상 첫 7관왕을 이루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13일 개막한 전국체전에서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7일간 합친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은 대회 신기록과 다관왕, 다연패 기록들을 쏟아냈다.

광주체고 문건영은 기계체조에서 무려 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7관왕은 전국체전 104년의 역사상 처음 달성된 대기록이다.

문건영은 지난 17일 영암삼호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개인종합에서 합계 81.566점을 받으면서 이번 대회 금메달 레이스를 시작했다. 문건영은 이 금메달로 전국체전 사상 고등부 첫 개인종합 2연패도 달성했다.

문건영은 이어 도마·평행봉·철봉·안마·링·마루 종목별 경기에서도 모두 금빛 연기를 선보였다.

7관왕과 함께 개인종합·도마·평행봉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대회 2연패도 달성하는 등 문건영은 광주체고 선배 양학선에 이은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줬다.

‘한국 여자허들 간판’ 정혜림은 전국체전 8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광주시청 소속으로는 6연패다.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남자 400m 계주 한국 신기록으로 동메달을 합작한 김규영과 고승환(이

상 광주시청)은 각각 2관왕과 4관왕에 올랐다. 모일환(광주시청)도 육상 남자일반부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광주시청 육상팀의 질주가 이어졌다.

기대를 모았던 양궁 안산(광주여대)은 라이벌 대결에서 임시현에 패해 은메달에 그쳤지만, 거리별 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조정 종목에 출전한 광주체고 여자 선수 전원인 2관왕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남녀고등부에 걸린 8개 금메달 가운데 4개를 휩쓸며 선전을 펼쳤다.

전남은 육상과 사격에서 대회 연패와 다관왕 기록을 만들어냈다.

18세 이하 육상 부문에서 배건울(전남체고)이 2연패와 3관왕을 이뤘으며 나상우와 유지웅(이상 전남체고)이 각각 2관왕으로 선전했다. 전남체고의 이은빈은 3관왕과 2연패, 송수하는 3관왕을 차지했다.

일반부에서는 포환던지기 정일우(여주시청)가 9연패,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이 5연패를 차지했다.

사격에서는 김보미·오민경·인소연·허연우로 구성된 전남선발팀이 2연패를, 우수는 전남도청 운동진과 김민수가 각각 5연패와 2연패에 성공했다.

양궁은 18세 이하에서 조한이(순천여고)가 2관왕을, 일반부 최미선·이은경·강수빈·손예령으로 구성된 선발팀이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순천여고 조한이는 여고 60m와 혼성단체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수 남일반부에서 윤용진과 김민수(이상 전남도청)가 5연패와 2연패를, 김선우와 윤현정(이상 여수정보과학고)이 댄스스포츠에서 각각 2관왕을 획득했다.

/특별취재반



제104회 전국체전 체조 남고부 경기에서 7관왕에 오른 광주체고의 문건영이 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영 황선우 금 5개...3년 연속 MVP

수영 김서영·허연경 5관왕
다이빙 최강인도 금메달 5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가 박태환(34)도 이루지 못한 사상 첫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최우수선수상(MVP) 3회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 MVP 기지단 투표에서 63표 중 57표를 받아 압도적인 표 차로 수영 김우민(강원도청·2표)을 제치고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MVP를 거머쥐었다. 상금 500만원도 받았다.

황선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9세 이하부(고등부)로 축소해서 열린 2021년 5관왕에 올라 첫 MVP에 올랐고, 지난해엔 4관왕을 차지해 2년 연속 MVP 수상에 성공했다.

그리고 올해엔 15일 수영 남자 일반부 계영 800m, 16일 자유형 200m, 17일 계영 400m, 18일 자유형 100m, 19일 혼계영 400m 등 5개 출전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5관왕에 올라 3년 연속 MVP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대한체육회는 1980년 제61회 대회부터 MVP를 뽑았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회 연속 MVP를 받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년 연속 MVP를 거머쥔 선수도 손에 꼽을 만큼 적다.

황선우 이전까지 역대 김태현(1998~1999년)과 수영 박태환(2007~2008년), 단 두 명뿐이었다.

박태환은 역대 최다인 총 5차례(2005년, 2007년, 2008년, 2013년, 2017년) MVP를 받았지만, 2006년 육상 세단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운 김덕현에게 MVP를 내주며 아쉽게 연속 수상 기록을 놓쳤다.

황선우는 MVP 3회 수상을 하며 박태환이 가진 최다 수상 기록에 다가섰다.

만 20세인 황선우가 앞으로 3차례 전국체전 MVP를 더 받으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갱신한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최악의 몸 상태를 딛고 5관왕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그는 개막일 전날인 12일 소속팀 동료들과 대회가 열리는 전남 목포 시내 식당을 찾았다가 낚음식을 잘못 먹어 발열과 배탈 증세에 시달렸다.

식중독 증상으로 체중이 이틀 만에 약 5kg이 빠지기도 했다.

황선우는 컨디션 문제를 딛고 출전한 5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황선우(강원도청)가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개의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선우는 팀 동료이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인 수영 남자 자유형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과 MVP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우민이 4관왕을 차지한 뒤 마지막 출전 종목인 혼계영 400m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MVP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딴 선수는 황선우를 비롯해 수영 여자 일반부 김서영(경북도청), 수영 여자 고등부 허연경(방산고), 다이빙 남자 고등부 최강인(울곡고) 등 총 4명이다.

고등부 5관왕 허연경은 여자 자유형 5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나 일반부에서 5관왕을 차지한 황선우에게 경쟁력이 밀렸다.

황선우는 박태환의 뒤를 이은 한국 수영의 에이

스다. 그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고,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이 종목 결승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22년과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한국 수영의 간판으로 발돋움했다.

세계 경쟁력을 확인한 황선우는 지난달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자유형 200m, 남자 계영 800m), 은메달 2개(남자 혼계영 200m, 남자 계영 400m), 동메달 2개(자유형 100m, 혼성 혼계영 400m) 등 총 6개 메달을 땀

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청 검도팀이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검도회 제공>

광주 검도선수단 금·은·동메달 수확

북구청, 남자 일반부 단체전 금
탐솔라, 여자부 단체전 은
조선대, 남자 대학부 단체전 동

광주 검도선수단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 검도회(오형석 회장)에 따르면 광주대표로 출전한 북구청 검도팀이 최근 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탐솔라는 여자부 단체전에서 은메달, 조선대는 동메달을 일궈냈다.

북구청은 충남과 전북, 울산 체육팀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 무안군청팀과 박빙의 대결 끝에 1-0으로 승리했다. 북구청 검도부는 1990년 창단 후

전국체전에서 다섯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2019년 전국 제대 이후 5년에 정상에 올랐다.

북구청 검도팀은 최근 선수 2명의 성비위가 불거져 흥역을 치렀으나, 선수와 임원진이 한마음으로 금메달을 일궈내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관형(광주 북구청)은 “감독님과 검도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면서 “북구민과 검도인들에게 보답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탐솔라는 여자부 단체전 결승전에서 충남팀을 상대로 선전했으나 은메달을 차지했다. 탐솔라는 팀 창단 이후 전국체전에서 첫 메달을 획득, 기대를 모았다.

조선대는 남자 대학부 단체전에서 홈팀 전남 선발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별취재반

장수정 여자 테니스 7번째 금 “고향 친척들 응원 덕”

전국체전에서 7번째 여자 테니스 단식 금메달을 따낸 장수정(대구시청)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한 게 우승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장수정은 19일 대한테니스협회와 인터뷰에서 “전국체전에서는 부담감을 안고 땀만 뺀다”(이번에는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풀어나갔다)고 말했다.

장수정은 지난 17일 목포 부주산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테니스 여자 일반부 단식 결승에서 정보영(NH농협)을 2-0(6-1 6-1)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장수정은 통산 7번째 전국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수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체전 4연패를 이뤘고, 2018년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이어 2019년 서울 대회와 2022년 울산 대회, 그리고 이번 전남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2020년 대회는 열리지 못했고, 2021년 대회는 고등부 경기만 열렸다.

장수정은 “부모님 고향이 여수와 순천이어서 결승에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신 것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